

종합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 단선전철 2016년께 착공

KTX 광주~목포 '저속철' 우려 현실화

경전선 광주~순천구간이 단선전철로 이르면 2016년 착공된다. 또 광주~대구 간 190여km 구간을 단선전철로 잇는 방안이 검토된다.

〈관련기사 3면〉

그러나, 호남고속철도(KTX) 광주~목포 구간은 기존노선을 고속화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지역민들의 '저속철' 우려가 현실화됐다.

국토해양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오는 2020년까지 철도망 확장사업을 담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이 계획은 지난해 9월 발표된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광주 송정~보성~순천까지 113km를 2조95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단선전철로 연결하는 방안이 '2016~2020년 착수사업'으로 확정됐다.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구간을 복선전철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나 결국 단선전철 방식으로 결정됨에 따라 향후 정부계획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됐다. 전남도는 이 구간이 복선전철화되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교통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영호남의 교류촉진과 남해안권 산업 및 관광활성화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광주~대구까지 191.9km를 4조8000여억원을 들여 단선전철화하는 계획도 추가 검토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또 신규 사업으로 덕양~여수울촌산단까지 7.1km길이의 여수울촌산단 인입철도를 총 사업비 1379억원을 들여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착공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지난 2일 광주시 서구 영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한 공중파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 '기적의 오디션'의 참가자들이 방송촬영이 시작되자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오디션 열풍' 광주

방송사, 예비연기자 선발 순식간에 500여명 몰려

5살 꼬마부터 중년 여성도

지난 2일 오전 8시20분께 광주시 서구 영주종합체육관.

제법 쌀쌀한 날씨였지만 이른 아침부터 시민 100여명이 길게 줄을 서있었다. 이날 한 공중파 방송사가 주최하는 연가오디션 프로그램 '기적의 오디션'의 광주 예선에 참가하기 위한 예비 '연기자'들이다. 행사 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부터였지만 6살 꼬마부터 50대 중년 여성까지 가까이 줄을 섰다. 오전 9시를 넘기자 순식간에 500여명으로 늘었다.

최근 신드롬을 방불케하는 TV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해 '끼'를 선보이고, 참여를 통해 프로그램 자체를 즐기려는 시민들이었다. TV프로그램인 '슈퍼스타 K', '스타오디션 위대한 탄생' 등에서 평범한 시민이 스타로 발돋움하는 모습을 지켜봐오다, 직접 참여자로 나선 것이다.

이날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은 자신이 선보일 연기를 위해 소형 오디오 등 소품을 갖춰 온 사람부터,

80년대 교복, 비보이 복장 등 '오디션'을 앞두고 신경을 많이 쓴 모습들이었다.

전주에서 왔다는 신모(14)군은 "큰 키가 감점이라, 차승원과 같은 배우 겸 모델이 꿈"이라며 어머니 최모(40)씨의 손을 꼭잡고 준비해온 대본을 읽고 있었다. 최씨는 "이번 오디션이 아들의 꿈이 실현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혔다.

모녀 참가자도 있었다. 신미경(54)·유재은(24)씨 모녀는 "마음속에 간직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라며 즉석에서 연가와 노래 시범을 보이기도 했다.

오전 9시30분이 되자 방송촬영이 시작했다. '기적의 오디션'은 오후 6월 본방송을 앞두고 전국을 돌

며 예선을 실시중이다.

이날 오디션에 응모한 이 지역 최종 참가자 수는 475명. 이 프로그램 최종 우승자는 드라마에 주연급으로 캐스팅 되는 것과 함께 상금 2억원의 부상, CF 촬영 등의 특전을 누릴 수 있다.

참가자 최모(여·24)씨는 "TV속 세상에 내가 출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끌렸다"며 "누구나 한번쯤 내가 연기를 하면 어떨까"상상만 했던 것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매력"이라고 오디션 프로그램의 인기를 설명했다.

"기적의 오디션" 연출팀 관계자는 "광주는 대전에 이어 전국 두 번째 예선이지만 참가 열기가 폭발적"이라며 "오디션 프로그램의 인기를 실감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 케이블TV가 주최하는 'Korea's God Talent'라는 제목의 오디션 프로그램도 1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박준영 지사 유럽 투자유치 나서

독일·덴마크 방문 신재생에너지 기업들과 협의



박준영 전남지사를 단장으로 한 전남도 투자유치단이 신재생 에너지와 생물·약물 분야 투자유치를 위해 3일 독일과 덴마크 등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투자유치단은 이날부터 10일까지 독일 하노버·잘츠베르겐·뮌헨과 덴마크 오르후스 등의 현지 기업들을 직접 방문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8일간의 이번 일정에 전남도의 역점사업인 5GW 풍력프로젝트에 대한 유럽의 세계적 풍력기업 방문이 포함돼 있어 결과가 주목적이다.

또 생물·약물 분야에서 세계적 응용

기술과 산업화 노하우를 가진 독일 프라운호퍼재단과 화산에 생물·약물 연구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 관광레저, 종합화학 분야 투자기업을 찾아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F1 한국대회, 2012여수세계박람회 등 도내 4대 국제행사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순방을 위해 2~3년 동안 실무 투자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독일과 덴마크의 우수한 기업이 높은 관심과 진출의사를 밝혀 상당한 성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 이틀 연속 요오드 검출

대전·대구선 방사성 銀 검출도

대전과 대구에서 방사성 은(銀)이 검출된데 이어 대전에서는 방사성 세슘(Cs-137, Cs-134)이 검출됐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31일과 1일 이틀간 연속으로 공기중에서 요오드가 검출됐다.

3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전국 12개 지방검측소에서 공기 중 방사능 물질을 검사한 결과 대전에서 극미량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확인된 세슘의 방사선량은 0.067(Cs-137)~0.082(Cs-134)mBq/m로, 인체에 거의 영향이 없는 수준이다. 최고 농도를 연간 피폭 방사선량으로 환산해도 0.0000215mSv 수준으로, 이는 X-선 촬영 때 받는 양(약 0.1mSv)의 4600분의 1에 불과하다.

방사성 요오드(I-131)는 광주를 비롯 전국 12개 검측소에서 고부 발견됐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24~28일까지 채취한 공기에서 0.049 mBq/m이 검출된 이후 발견되지 않았으나 지난달 31일과 4월1일 채취한 공기에서 각각 0.099와 0.038mBq/m의 요오드가 검출됐다.

지난 2일 대전과 대구에서 극미량의 방사성 은(銀)이 검출됐지만, 3일에는 검출되지 않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에서 방사성 세슘(Cs-137)과 방사성 은(銀)은(Ag-110m)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이날 검출된 은의 방사선량은 0.066~0.153mBq/m로서 인체에 거의 영향이 없는 수준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보성녹차 한파피해

복구비 16억 지원

전남도는 지난 겨울 한파로 인한 보성지역 녹차나무 피해가 농업재해보상액 총 15억8498만원의 복구비와 각종 지원대책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보성녹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이 지역 월평균 최저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날씨가 12일 이상 지속되면서 전체 재배면적 1894ha(2594농가) 중 1336ha(1413농가)에 한파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도는 녹차 동해피해가 35년 만에 발생함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이를 농업재해보상액으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했으며 지난달 30일 중앙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재해로 인정받았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그나저나 삼십하난 끝내준다

광양항 對日수출 물류비 '부산의 절반'

전주~광양 고속도 개통 ... 가격 경쟁력도 크게 앞서

전남도, 각종 지원 등 호남·충청권 물류유치 총력전

광양항의 대(對) 일본 수출 물류비가 부산항에 비해 50% 가량 저렴해 신선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해상 수출 대체창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양항과 일본 시모노세키(下關)간 페리호 운항과 최근 개통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등으로 광양항 물류비의 가격경쟁

력이 크게 높아졌다. 실제로 광양항과 부산항의 시모노세키간 물류비(I TEU당)를 비교하면 전남 서부지역은 광양항을 이용할 때 32만원인 반면 부산항 이용시 63만원으로 불어난다. 광양권은 광양항 25만원 부산항 60만원이었으며 전북권은 광양항 35만

원 부산항 60만원, 대전권은 광양항 30만원 부산항 60만원 등으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최근 전주~광양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전북이나 충청권 물류의 시간·경제적 비용이 부산항으로 가는 것보다 더욱 낮아져 가격 경쟁력 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호남·충청권 등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일본에 수출하려면 대부분 거리가 먼 부산항을 이용해 왔으며 전일 또는 당일 오전 8시까지도

착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시간·경제적인 부담이 컸다.

하지만 지난 1월 광양항에서 일본 시모노세키항으로 카페리 운항이 시작되면서 호남·충청권에서 광양항을 이용할 경우 오전에 수확한 농수산물도 선적이 가능해 신선도 유지와 함께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어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광양항을 통해 수출하는 신선농산물에 수출물류비 지원을 상향 조정하고 타시·도 농수산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물류량을 확보해 광양항 이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박재완 고용부 장관 來光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이 4일 광주고용센터를 방문해 광주·전남지역 일자리 창출 현황을 점검한다.



박 장관은 이날 광주시 북구 광주고용센터에서 열리는 취업희망포럼 프로그램과 고용보급설명회 현장을 찾아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언론인들을 만나 지역 일자리 창출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전통침구학 연수세미나' (Traditional Bedding Study Seminar) by CH China Culture Center. Includes details on medical care, bedding, and study topics.

Advertisement for '모바일 홈, 스마트폰 어플 개발' (Mobile Home, Smartphone App Development) by (주)웨이커스. Lists various services like restaurant, movie, and app development.

Advertisement for 'MBA/Law School 獎學生 募集' (MBA/Law School Award Student Recruitment) by Binyang Scholarship Society. Details recruitment criteria and contact information.